

제주화랑협회 첫 국제화랑미술제 개최 주목

이달 29부터 31일까지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서 5층 객실·로비가 전시장

국내외 30여개 화랑 참여 120명 작가 400여점 선배 회화·판화·조각 등 다양 제주미술시장 활력소 될까

올해 3월 초, 제주 미술인의 폭넓은 활동과 제주 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며 제주의 갤러리들이 연대해 출범한 '제주화랑협

회'(회장 송부미). 이들이 "침체되어 있는 제주미술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화랑협회 첫 번째 국제행사인 '2022 제주국제화랑미술제'로, 이달 29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11일 부미갤러리에서 열린 '2022 제주국제화랑미술제' 기자회견에서 미술제를 추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임원들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며 첫 미술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첫 행사를 반드시 성공시켜 제주국제화랑미술제를 활성화시켜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직위는 제주국제화랑미술제 개최의 기대 및 효과로 제주지역 작가

를 우선으로 국제적 규모의 아트페어에 지속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 한국 및 해외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작품 경향을 가깝게 접하고 소통하며 경쟁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적절한 작품 유통시장을 확보해 예술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술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작가의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제주의 예술가들과 관객에게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고 감동을 이끌어 제주미술이 세계화에 일조하는 문화의 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5층 객실(27개)과 1·2층 로비를 전시장으로 활용하게 될 호텔 아트페어인 제1

회 '제주국제화랑미술제'에는 도내 10여개 화랑을 비롯 도외 및 해외 20여개 화랑이 참여한다.

전시장엔 120여명 작가의 회화, 판화, 조각, 도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400여 점이 전시된다. 초대작가 부스에서는 한국단색화의 대표 주자 김태호 작가와 최명영 작가를 비롯 구자승, 강요배, 이세현, 김동유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조직위는 각 작품의 가격이 5만원부터 1억원대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제주국제화랑미술제는 첫 날인 29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관람객을 맞는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황학주의 제주살이 (42)

쪽방 한 칸의 평지

새벽 소나기를 퍼붓던 하늘이 조금 밝아옵니다. 막힌 데 없이 빗물은 흘러 내려가도 증열증열 내려가지 않는 꿈의 도랑에서, 산동네 골목 같은 데서, 첫 직장에 다니던 때가 있었지요. 자꾸 이어 붙여지는 판잣집 맨 위쪽 자꾸 누렇게 찌들어 겹치는 세월을 바라보며 맛있는 샘물 먹으러 오라는 기별을 벗에게 하던 언덕은 모두들 가난했지요. 거기서 환한 시가지를 내려다보던 때, 생각이 납니다. 마음의 분실물보관소가 있다면 돌맹이에 찢긴 신발을 끌며 그 것이 몸인가, 몸이 아닌가 모를 지경의 경량(輕量)만을 가지고 사랑의 향에 나아가려 했던 비늘같이 반짝이는 것이 어디엔가 굴러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절이 떠오르는 건 내려다 보이는 제주 바다의 환한 어등(魚燈) 때문이지요.

스 언저리 평지에서 조나 귀리를 심고 좁쌀죽을 먹었다는 이 예겐 얼마 안 되는 조각보같은 비탈밭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그 때 그분이 바라보던 기층 저 건너 제주 바다의 어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때는 물 파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돌담 잘 쌓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극한의 자연조건 속에서 태어나 생존의 문제가 언제나 절대적 문제였던 노인의 만년(晩年)은 그대로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굴밭도 나눠주고 갈 정도의 여유도 있었지요. 그런 때 돌담을 쌓으며 자식들 이야기하다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한 마디로 가난은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꼭 성실하지 않아서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거지요. 맞는 말 씬입니다. 가난을 개인적 문제로 간단하게 치부할 때 사회적 의로움이 자리할 양지는 없어 집니다. 많은 이들에게 가난한 음지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새발자국 같은 작은 삶의 흔적 하나가 기층에서 생길 몇 알을 줬던 기억을 누군가는 아프게 기록했지요. 캄캄한 산동네에서 환한 시가지를 내려다 보던 가난한 꿈 하나가 나그네처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여기를 신안동으로 부르기도 하고, 와흘리 옆 마을이라 와흘리로 치는 사람도 있지만 공식 지명은 신촌리입니다. 하여간 지대가 높은 마을이라 드넓은 굴밭 밑으로 조천음이 보이고 그 뒤로 펼쳐진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옛날엔 이 동네 기층에 몇 평 안 되는 평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몇 집 건너에 살고 있었습니 다. 어느 날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며 담이 무너진 우리집 돌담을 쌓으러 온 분이네요. 얼마 전 마을에서 기별이 와 그분의 타계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작 쪽방 한 칸의 넓이인 이 어

내게도 좀더, 좀더, 열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한용국 작 '삶의 자리'

한용국 작가 31년 작품 세계 한눈에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 작가 첫 개인전... 오는 18일까지

올해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내 문을 연 제주갤러리가 첫 공모 선정 작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그 시작을 여는 첫 전시의 주인공은 한용국 작가다.

지난 6일부터 관람객을 맞고 있는 한 작가의 제17회 작품전 '삶의 자리&서화합벽'은 그의 등단 31년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게 기획됐다.

전시장엔 자연을 재구성해 풍경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삶의자리' 연작과 사물을 문자와 결합해 정물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옛이야기' 연작 등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 40여점이 내걸렸다.

'삶의자리' 연작에서 작가는 귀향 후 유년기의 기억을 찾아 제주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제주의 소나무, 한라산, 바다, 시골집, 바람과 제주색 등을 표현한 풍경화를 통해 제주인들의 삶과 애환, 역사를 담고자 한다. 전시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오른지기자

전영실 네 번째 개인전 '해녀의 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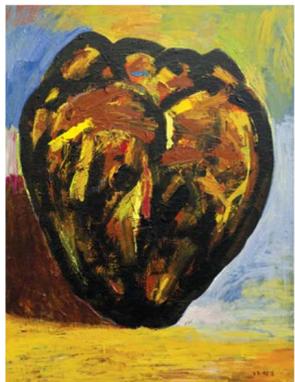
오는 16일까지 심현갤러리

전영실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이 심현갤러리(제주시 아란14길 3)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리고 있다.

작가는 전시 주제를 크게 '해녀의 심장' '해녀의 산' '할머니의 냄새'로 잡고 '해녀의 심장-스물두살 김옥련' 등 작품 3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의 모티브는 피부의 촉감, 냄새 같은 몸이 기억하는 감각이다. 작가는 심장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을 '감각'이라고 하고, 가장 외곽에 있는 피부(감각)는 몸의 중심인 심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냄새(감각)는 기억의 중심으로 데려다 주는데, 작가는 오



전영실 작 '해녀의 심장-흠이었던 꽃'

래된 냄새 안에서 자신의 안에 있는 할머니들의 존재를 불러낼 수 있었다고 전한다. 오른지기자

제주섬유예술가회 정기전 14일까지 문예회관 2전시실

제주섬유예술가회 열네 번째 정기전 'WITH-감빛 제주'가 제주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섬유가회는 지난해에 이

어 올해도 제주의 전통 감물 염색 보존 및 감물 염색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회원들이 단합해 제주 곳곳으로 염색한 재료와 염색기법을 활용해 한라산을 형상화한 공동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목향에 깃든 한글 사랑 30일까지 제5회 한초회전

대한민국미술대전한글서예 제주지역 초대작가회(한초회)의 다섯 번째 전시 '외솔 최현배 선생의 나라

사랑 정신'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 '떡갈이있는집'에서 열리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외솔 선생의 나라사랑의 길, 외솔선생 육종 시 등 외솔 최현배 선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복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